

KOSDAQ | 소프트웨어와서비스

슈어소프트테크 (298830)

소프트웨어 검증 분야를 선도하는 작지만 알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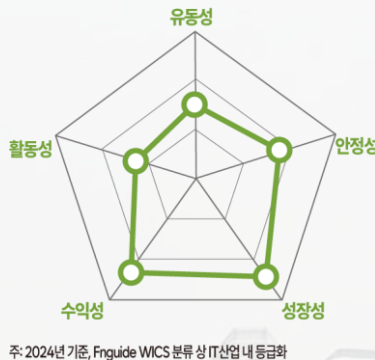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슈어소프트테크는 2002년 설립되어 202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소프트웨어(S/W) 자동화 툴 및 검증 서비스 기업. 2010년경부터 현대차 그룹에 차량 S/W 안전성 관련 검증 툴/서비스를 제공하며 협력을 이어왔고, 현대자동차의 지분 투자도 유치해 낸 보기 드문 국내 S/W 검증 분야 강소기업(3Q25말 기준 동사에 대한 현대자동차 지분을 7.32%)
- 투자포인트는 1) S/W 검증 분야 차별화된 기술력 보유, 2) 전략 고객과의 협업 확대 기대, 3)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동력(모비젠, 슈어데이터랩) 확보
- 리스크 요인은 자율주행 시장 성장의 속도조절 가능성, S/W 전문인력 구인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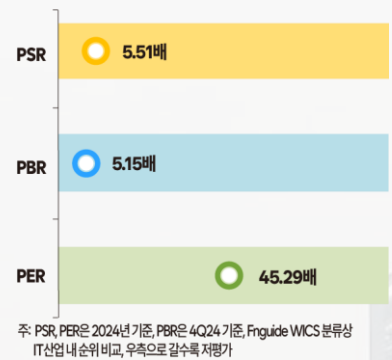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슈어소프트테크 (298830)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혜빈 hbkim@kirs.or.kr

KOSDAQ

소프트웨어서비스

슈어소프트테크는 고신뢰 고위험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서비스 전문기업

슈어소프트테크는 2002년 설립. 성장 토대가 약했던 국내 고신뢰 고위험 S/W 분야 관련 시장을 선도하며 성장. 제품별 매출 비중은 S/W시험검증 부문(코드검증 솔루션, 시스템검증 솔루션, 모델 검증 솔루션, 미래기술검증 솔루션) 67.3%, 빅데이터/AI(AI & Bigdata, AI Ops) 부문 32.6%, 기타 부문 0.1%(3Q25 누적 연결 기준)

2026년은 본격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는 원년일 전망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2025년 865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143억 달러 규모로 견조한 성장 기대. 글로벌 자율주행 Top 2인 웨이모, 테슬라는 각각의 방식으로 자율주행 산업 상용화를 주도 중. 자율주행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신규업체들의 참전도 지속될 전망. 최근 CES 2026에서는 엔비디아가 오픈소스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하는 등 추론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상용화 기대감도 커지는 중. 현대차그룹도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 계획 등을 2025년 9월 현대차그룹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 기대된다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912억 원(+2.7% YoY), 99억 원(+25.5% YoY)을 기대. 2026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024억 원(+12.3% YoY), 122억 원(+23.2% YoY)으로 전망. 주 고객의 SDV 개발 확대에 따라 자동차 S/W 검증 수요 성장이 기대되고, 주춤했던 원자력/에너지 관련 수요도 일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향후 주요 고객사와의 협업 확대 및 연결 자회사들의 성장이 동사 실적 개선으로 연결된다면 추가적인 기업가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억원)	434	633	888	912	1,024
YoY(%)	176	45.7	40.3	2.7	12.3
영업이익(억원)	97	115	79	99	122
OP 마진(%)	22.3	18.1	8.9	10.9	11.9
지배주주순이익(억원)	94	51	108	72	99
EPS(원)	191	98	205	137	185
YoY(%)	81	-49.0	110.6	-33.5	35.5
PER(배)	0.0	71.1	21.2	58.8	47.8
PSR(배)	0.0	5.7	2.6	4.6	4.6
EV/EBITDA(배)	N/A	27.3	20.0	30.4	28.3
PBR(배)	0.0	4.5	2.5	4.3	4.3
ROE(%)	18.6	7.3	12.4	7.5	9.5
배당수익률(%)	N/A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8)	8,850원
52주 최고가	9,300원
52주 최저가	4,070원
KOSDAQ (1/8)	944.06p
자본금	53억원
시가총액	4,657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53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80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18억원
외국인지분율	1.32%
주요주주	배현섭 외 15인 41.83%
	현대자동차 7.3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4.1	61.8	87.3
상대주가	31.8	34.4	42.8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EPS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슈어소프트테크는 고신뢰 고위험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서비스 전문기업

슈어소프트테크는 2002년
설립되어 202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S/W 자동화 툴 및 검증
서비스 전문기업

슈어소프트테크는 'Mission Critical Software', 즉 '고신뢰 고위험 소프트웨어(S/W)'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동화 툴(도구) 개발/공급과 S/W 자동화 검증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고신뢰 고위험 소프트웨어는 기능안전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개발 과정(V-Process)에 따라 정의된 소프트웨어 검증 활동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당사는 필수 검증 활동을 자동화하는 S/W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시험검증 자동화 솔루션을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license and maintenance), 기간단위 구독 방식(subscription) 형태로 자동차, 국방, 원자력 및 에너지, 철도/항공/조선/로봇 분야 국내 중견/대기업들에 S/W 솔루션 또는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관련 S/W 분야는 동사 사업 성장의 핵심 영역이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체제 전환은 동사의 S/W 시험검증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당사는 자동차 제어기 시험검증 사업을 수행하며 자동차 제어기 S/W에 대한 다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고, 자동차 S/W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자동차 S/W 특화 시험검증 솔루션을 개발/서비스하게 되었다. 당사는 차세대 차량의 제어기 일부에 대한 S/W를 직접 개발하며 자동차 S/W 종합 엔지니어링 파트너로도 성장하고 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2002년 설립되었다. 성장 토대가 약했던 국내 고신뢰 고위험 S/W 분야 관련하여 당사는 시장을 선도하며 성장했다. 특히 당사는 2010년경부터 현대차그룹에 차량 S/W 안전성 관련 검증 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력하였다. 2012년에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하며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였다. 2014년에는 미국법인(법인명 V-cubed Solutions Inc)을 설립하며 주 고객과 미주 사업 관련 협업을 강화하였다.

2015년 이후 슈어소프트테크는 다수 외부 수상을 이어가며 S/W 분야 기술선도 강소기업으로서 그 입지를 인정받았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았고, 2016년 제조업 고객의 공정 효율 관리와 사물인터넷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융합혁신포럼으로부터 국민공감 국가 IoT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유치하였고,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소프트웨어 분야 경쟁력을 재차 인정받았다. 2020년에는 영국 Financial Times로부터 '2021년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선정(테크 산업군 내 68위로 등재)되기도 했고, 같은 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창업진흥 유공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기업에도 선정되었다.

2021년 이후 슈어소프트테크는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상장과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결실을 보였다. 2023년 4월, 당사는 엔에이치스팩22호와 합병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AI/빅데이터 전문기업 '모비젠'을 인수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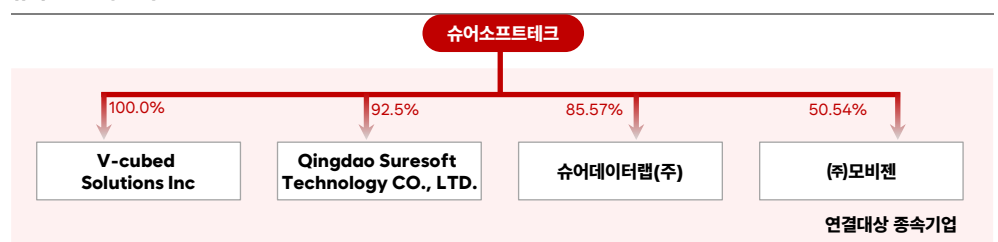
2025년에도 당사는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 행보를 이어나갔는데, 2025년 7월에 피지컬시 스타트업 '블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였고, 2025년 12월에 디지털 트윈 사업 확대 등을 위해 그래픽 솔루션 전문 스타트업 '그래피카'를 인수하였다. 블릭과 그래피카의 경우 동사의 기존 사업과는 다소 상이한 사업영역을 갖고 있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3Q25말 기준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4개사

3Q25말 기준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4개사이다. 1) V-cubed Solutions Inc는 2014년 S/W 개발/공급을 위해 설립된 미주 현지법인(동사가 지분 100.0% 보유)이다. 2) Qingdao Suresoft Technology CO., LTD는 2017년 데이터 통신장비 제작/공급을 위해 설립된 중국 현지법인(동사가 지분 100.0% 보유)이다. 3) 슈어데이터랩은 2019년에 설립된 데이터 관련 S/W 사업(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동사가 지분 85.57% 보유)이다. 4) 모비젠은 2023년 인수한 AI/빅데이터/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당시 동사가 229억 원으로 모비젠 지분 43.70%를 확보하였다(3Q25말 현재 동사 지분율은 50.54%).

슈어소프트테크 지분도



주: 3Q25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매출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3Q25 누적 기준 매출액은 SW시험검증 67.3%, 빅데이터/AI 32.6%, 기타 0.1%로 구성

슈어소프트테크의 3Q25 누적 연결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은 S/W시험검증 부문(코드검증 솔루션, 시스템검증 솔루션, 모델검증 솔루션, 미래기술검증 솔루션) 67.3%, 빅데이터/AI(AI & Bigdata, AI Ops) 부문 32.6%, 기타 부문 0.1%로 구분된다.

참고로 산업별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자동차향 52.5%, 국방/우주항공향 7.6%, 원자력/에너지향 3.7%, 신사업/기타향 4.7%, 통신/공공(빅데이터/AI)향 31.5% 이다(3Q25 누적 연결 기준). 즉 동사는 자동차 산업향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고, 통신/공공(빅데이터/AI) 산업향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매출액 중 검증 솔루션 제품 매출은 약 30%, 검증 서비스 매출은 약 70% 비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검증 S/W 툴/솔루션을 고객에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주로 고객에게 S/W 검증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제공하는 것이 동사 사업 주력이다.

S/W 테스트는 S/W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결함을 확인하여 품질을 검증하는 작업

S/W 테스트는 수동이나 자동으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평가하는 작업으로, 명시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예상된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S/W 테스트란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동작과 성능, 안전성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함여부를 분석/발견하는 메커니즘이다. S/W 테스터는 해당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자의 기대 수준과 요구 사항에 맞게 S/W가 구현/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결함을 발견하고 최종적으로 결함 데이터를 근간으로 개발 프로젝트의 리스트 정보를 정량적 수치로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동사 부문별 사업 설명

동사의 주요 사업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델 검증 솔루션

모델 검증 솔루션은 S/W 코딩 전 모델 단계에서 정적, 동적 오류를 검출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Model Inspector, Model Verifier) 및 이를 활용한 3자 모델 검증 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코드 검증 솔루션

코드 검증 솔루션은 S/W 소스 코드의 정적, 동적 오류를 검출하는 자동화 S/W(Controller Tester, STATIC), 시험검증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S/W(COVER, VPES, VSPICE) 및 이를 활용한 3자 코드 검증 서비스를 포함한 것이다.

✓시스템 검증 솔루션

시스템 검증 솔루션은 S/W 모듈 구성과 상호 작용을 시험하는 S/W(AESOP, AUTORACT), 결합주입시험과 부하시험 등 시스템 강건성을 시험하는 S/W(FIT, PROV) 및 이를 활용한 3자 시스템 검증 서비스를 포함한 것이다.

✓미래기술 검증 솔루션

미래기술 검증 솔루션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배터리 기반 전력저장장치 등 여러 미래 기술에 대한 검증 솔루션과 서비스를 포함한 것이다. 동사는 시뮬레이션 검증, 커넥티비티 검증, 사이버보안 검증 등 다양한 검증을 위한 S/W(VISTA, ADI, SIMVA, AUTOSIM, FUZZIT)를 개발, 활용하고 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고객 S/W별 검증 툴을 개발하여 검증 서비스를 제공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슈어소프트테크는 고객의 다양한 S/W에 대해 모델/코드/시스템/미래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검증 툴을 개발하여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창립 이래 동사만의 소스 코드 분석 기술을 만들어 왔고 이를 통해 고객의 S/W 거의 모든 라인업의 소스 코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파악, 고객의 인정을 받아왔다. 또한 테스트링 업무를 자동화하여 편의성을 높여왔고,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S/W 내부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력을 시험하여 고객 신뢰를 쌓았다.

테스트는 동작 유무(정적/동적)와 내부구조 파악 여부(White Box/Black Box)로 구분, 슈어소프트테크는 정적 및 동적 White Box 테스트에 특화된 기업

참고로 S/W 테스트는 크게 4가지 용어(정적 테스트/동적 테스트, White Box 테스트/Black Box 테스트)로 구분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첫번째 구분은 테스트 수행 시 S/W의 동작 유무에 따른 구분이다. **정적 테스트(Static Testing)**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소스 코드 전체 또는 일부를 분석하는 기법이고, **동적 테스트(Dynamic Testing)**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다양한 입력 값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값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기법이다.

두번째 구분 기준은 S/W 내부 구조의 파악여부이다. **White-Box 테스트**는 소스 코드 구조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법으로, S/W 내부 구조와 동작을 세밀하게 검사하는 기술이다. 코드의 수행 경로, 불필요한 코드 혹은 테스트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한다. 반면 **Black-Box 테스트**는 프로그램 코드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이용할 수 없을 때에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으로 코드 정보 이외의 명세 정보나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보 등을 이용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기능누락 오류를 검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슈어소프트테크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White-Box 테스트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테스트 기술력을 사업화 하였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를 모두 수행하고, White-Box/Black-Box 테스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White-Box 테스트를 수행한다. 당사는 White-Box 테스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동사가 국내/외 S/W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포인트라 볼 수 있다. 즉 당사는 수준 높은 White-Box 테스트 기술을 통해 고객에게 보편성(모든 S/W 제품 라인업의 소스코드를 글로벌 수준으로 결함 없이 파악, 제공)과 편리성(테스트 자동화 제공), 프로그램 디버깅(프로그램 내 오류 찾아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슈어소프트테크 White-Box 테스트 원천기술 보유



자료: 슈어소프트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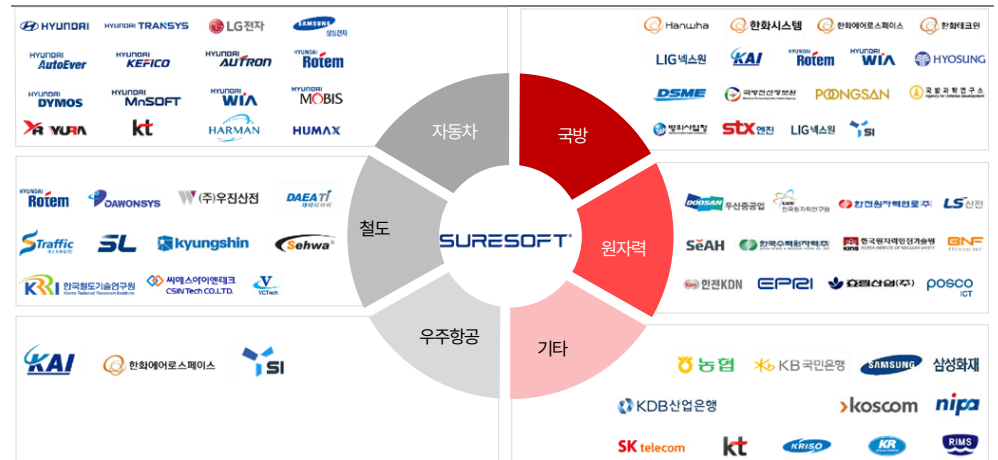
주 고객은 자동차, 원자력, 국방, 통신/공공 산업 내 국내 대기업/공공기관 등

슈어소프트테크 주요 고객사는
자동차, 원자력/에너지,
국방/우주항공 등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슈어소프트테크는 자동차, 원자력/에너지, 국방/우주항공/철도/로봇, 통신/공공(AI/빅데이터) 산업향으로 각종 S/W 검증 서비스를 고객에게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고객으로는 현대차그룹과 관련 부품사, LG전자, KT, 중국 완성차와 부품사 등이 있고, 원자력/에너지 관련 고객으로는 두산에너지빌리티, LS산전, 포스코DX,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있다. 국방/우주항공/철도/로봇 관련 고객으로는 방위사업청,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다원시스, 세트렉아이, 각종 로봇 스타트업 기업 등이 있고, 통신/공공(AI/빅데이터) 관련 고객으로 농협, KB국민은행, 산업은행, SKT 등이 있다.

슈어소프트테크 고객/파트너



자료: 슈어소프트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국내 경쟁사는 부재. S/W 검증 툴을 제공하는 해외업체 및 군소 서비스 업체만 존재

슈어소프트테크 경쟁사로 국내기업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인 동적 테스트와 White-Box 테스트는 고객의 각종 민감한 사업 정보,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 불가피함이 있어 관련 진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델, 코드, 시스템 검증 분야 각각으로 S/W 검증 툴을 일부 제공하는 해외업체들이 있고 이를 들여와 서비스하는 군소 기업은 존재하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 등은 배현섭 대표이사 외 15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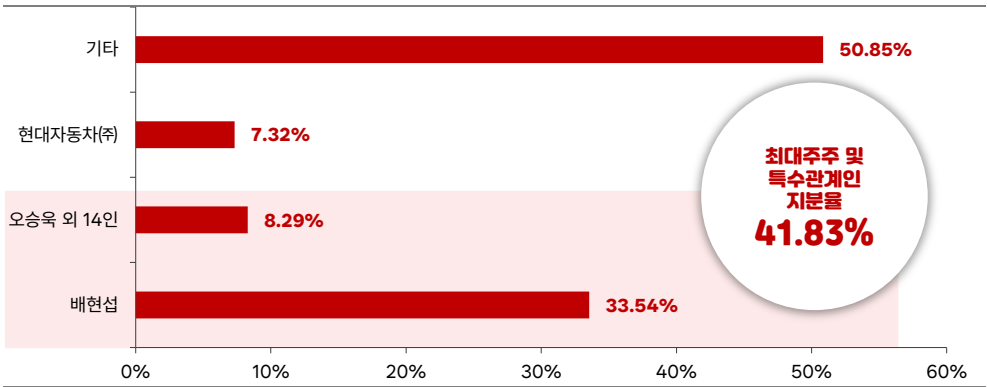
3Q25말 기준 슈어소프트테크의 최대주주는 배현섭 대표이사로, 지분 33.54% 보유

슈어소프트테크 최대주주는 창업자이자 現 대표이사인 배현섭 대표이사로, 동사 지분 33.54%를 보유하고 있다 (3Q25말 사업보고서 기준). 최대주주 등은 배현섭 대표이사 외 15인으로, 지분 41.83%를 보유 중이다(15인은 대부분 등기임원, 친인척 등으로 구성).

이 외에 5% 이상 주주로는 현대자동차(지분 7.32% 보유, 3Q25말 기준)가 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2023년 9월 5일, 동사에 대한 기존 지분 보유분 절반 즉 7.46%(385만주)를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주당 9,838원(총 378.8억원)에 매각했다. 동 매각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현대자동차의 동사 지분 변동은 없는 상태이다.

배현섭 대표이사는 1971년생으로 KAIST 전산학과 학사/석사/박사를 졸업(1989.03~1999.08 기간)한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1999.08~2000.10 기간), (주)매크로임팩트(2000.11~2002.02 기간)에서 근무하며 S/W 사업 관련 경험을 쌓았다. 그는 2002년 슈어소프트테크를 창업하여 창업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아오고 있다.

슈어소프트테크 주주 현황



주: 3Q25말 기준, 자료: Dai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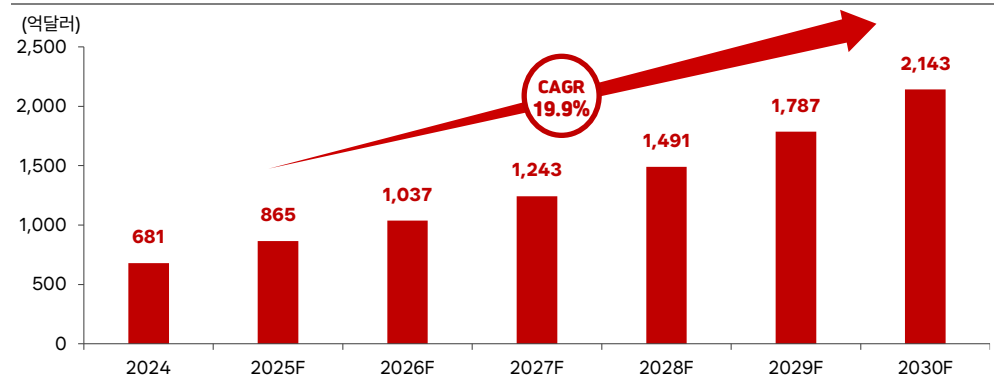
산업 현황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현황 및 전망

CES 2026의 중심 화두는 EV에서 AI와 자율주행 기술로 이동

2026년은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6의 중심 화두는 EV(전기차)에서 AI와 자율주행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EV 관련 정책 축소(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와 수요 둔화, 비용 부담이 확대되며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EV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막대한 투자 비용, 규제 장벽,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2025년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을 동반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하고, 웨이모는 서비스 지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또한, CES 2026에서는 엔비디아가 오픈소스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하는 등 추론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2025년 865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이후 연평균 19.9%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GrandViewResearch).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GrandView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총동원한 다중 감각 융합 방식을 지향. 2025년말 기준 연간 누적 자율주행 운행횟수는 총 2,0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예상

알파벳(구글) 자회사인 웨이모(Waymo)는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10개 도시에서 약 1,500 대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웨이모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자율주행 총 운행횟수는 연간 총 1,400만 건 이상으로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 연말까지 누적 운행 횟수는 2,000만 건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모는 2009년 구글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2016년 일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018년 상용 택시 서비스 ‘웨이모 원’을 출시했으나, 이용자 사전 심사와 지역 제한이 존재했다. 2020년 피닉스 일부 구역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운행을 개시하고, 2022년 샌프란시스코로 시험 지역을 확대했다. 참가자는 여전히 서비스 지역 거주자 중 지원자로 한정되었다. 2024년 웨이모는 피닉스에서 일반 대중 전면 서비스를 시작하고, LA와 샌프란시스코로 상용 지역/영역을 넓혔다. 같은 해 7월에는 모회사 알파벳에서 50억 달러 투자를 확보하고, 8월 6세대 모델을 공개했다.

웨이모는 2025년 11월 마이애미, 댈러스, 휴스턴 등 5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 운행을 개시했으며, 2026년에는 도쿄, 런던 등 약 20개 도시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웨이모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6세대 모

델은 센서 및 컴퓨팅 시스템 비용 등 측면 중심으로 대폭적인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었고, 카메라 13대, 라이다 4대, 레이더 6대, 외부 음향 수신기 1대가 장착된 구조이다. 즉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총동원한 다중 감각 융합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테슬라는 카메라와 AI만으로 자율주행을 완성하겠다는 비전 온리 전략

반면, 테슬라는 인간이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두뇌로 판단해 운전하는 것처럼, 오직 카메라와 AI만으로 자율주행을 완성하겠다는 ‘비전 온리’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테슬라에 따르면 여러 개의 센서를 사용할 경우 각 센서 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인간과 유사한 비전 기반 프로세스가 자율주행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전 온리 방식은 이미지 외 정보 해석을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AI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수가 많고 학습 경로가 복잡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테슬라는 2014년 10월 레벨2 부분자율주행인 ‘오토파일럿 1.0’을 출시했다. 당시 기능은 스마트 크루즈와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2017년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진입과 진출까지 수행하는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술을 공개, 완성도 높은 부분자율주행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2020년 테슬라는 베타 테스트 운전자 대상으로 도심 주행이 가능한 FSD(Full Self Driving) 패키지를 배포했다. 상용화 이후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Supervised FSD’로 변경되었다. 2025년 6월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기존 모델Y 차량에 FSD를 탑재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11월 애리조나주 교통국으로부터 운송 네트워크 기업 허가를 획득하며, 주 전역에서 유료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이 가능해졌다. 테슬라는 향후 피닉스, 라스베이거스, 댈러스 등지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으로, 2026년 미국 자율주행 시장 경쟁 구도는 Top 2인 웨이모, 테슬라를 중심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웨이모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 웨이모 드라이버



자료: Waymo,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테슬라 Supervised FSD



자료: Tesl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ES 2026에서 엔비디아는 개방형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 향후 추론 기반 AI가 자율주행 상용화의 핵심 전환점이 될 지 주목할 필요

한편, 엔비디아가 CES 2026에서 공개한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가 자율주행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파마요는 오픈 AI 모델, 시뮬레이션 도구, 대규모 데이터 세트로 구성된 개방형 생태계로,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도 자동차의 자율주행 두뇌를 만들어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알파마요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CLA에 탑재되어 1Q26 미국 내 도로에 투입되고, 2027년에는 우버 등과 함께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알파마요는 센서로 수집한 주행 데이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발생할 상황을 추론하여 동작하며, 판단 과정을 인간이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판단 근거와 동작은 시스템에 기록된다.

알파마요의 핵심은 자율주행 차량이 내린 판단 근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AI가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판단하고 제어하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엔드투엔드 방식의 테슬라와는 다르다. 자율주행 차의 판단 근거를 기록하고 인간에게 설명하는 것은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에 핵심이므로, 자율주행의 가장 큰 난제였던 책임 소재의 분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루시드, JLR, 우버 등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기업과 버클리 딥드라이브와 같은 자율주행 연구 커뮤니티 등은 향후 레벨4 자율주행 개발에 알파마요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주요 전략

25년 9월, 현대차그룹 CEO 인베스터 데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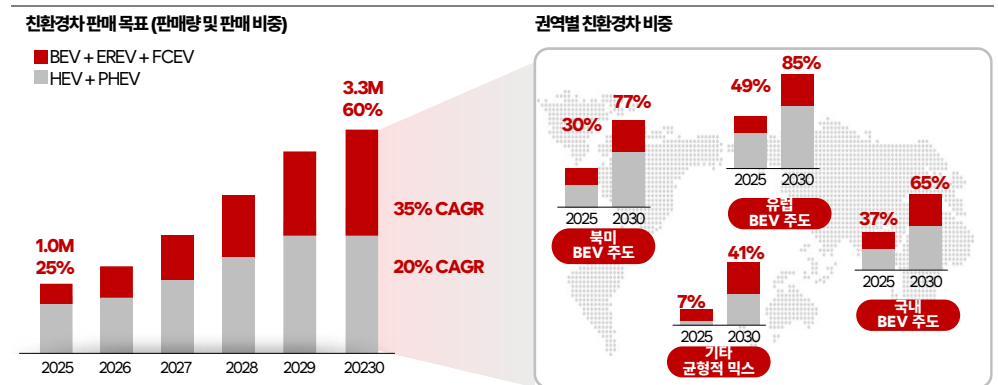
2025년 9월, 현대차그룹 역사상 최초로 해외(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가 개최되었다.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CID)는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투자자들과 공유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현대차그룹 CID 행사에서 발표된 주요한 전략 3가지, 친환경차 판매 확대, 스마트 팩토리 구축,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 내용을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전반적으로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량을 2030년 33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

현대차는 2030년까지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구축하고,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량을 2025년 100만 대 규모에서 2030년 330만 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친환경 차량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에서 반사 수혜를 얻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

2026년에는 유럽 지역에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아이오닉 3를 출시하고, 2027년 인도에서는 현지 특화 EV를 생산하는 등 친환경차 판매량 비중을 2025년 25%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하는 친환경차 중심의 판매량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차 친환경차 판매 목표



주: 상기 수치는 전망치 기준

자료: 현대차,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그룹은 실시간 데이터를 로봇 시스템과 연계해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할 전망

현대차그룹은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는 통합형 제조 프로세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모델을 HMGMA, 울산 신공장 등에 확대하고, 유연한 생산 체계를 확보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개발한 최첨단 제조 혁신 플랫폼이 적용된 그룹 최초의 스마트 팩토리이다.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술 등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현대차 그룹의 생산 공장 중 가장 높은 제조 효율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HMGMA는 조립 및 물류 시스템을 로봇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2026년부터 가동 예정인 울산 신공장은 비정형 부품 조립까지 자동화를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차 자동화 혁신 기술 도입



자료: 현대차,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SDV 페이스 카(Pace Car, 시험차)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양산차에 확대 적용할 것으로 기대

현대차는 2026년까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페이스 카(Pace Car, 시험차)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양산차에 확대 적용하고, 2Q26에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Pleos Connect(플레오스 커넥트)'가 적용된 차량을 첫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 개발은 통상적으로 H/W가 먼저 개발되면 그에 맞는 맞춤형 S/W를 따로 만들어서 엮는 방식이다. 따라서 차종이 바뀌면 S/W 개발도 다시 처음부터 전개해야 했으며, 구형 차량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SDV 개념을 도입해 H/W와 S/W의 개발을 분리하여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비용 또한 절감할 계획이다. 즉 H/W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모듈 형태'로 설계하고 양산해서 레고처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S/W는 S/W대로 차량용 운영체제 위에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독립적으로 개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처럼 S/W 업데이트를 통해 H/W 교체 없이 최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SDV 전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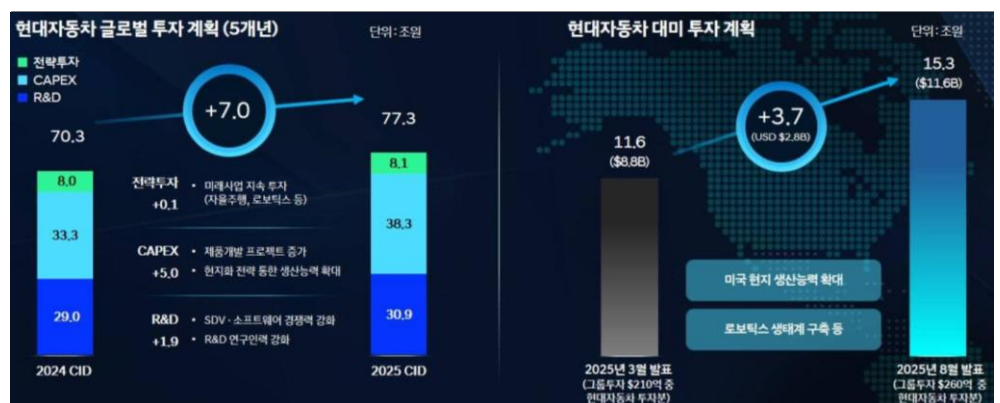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는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관세 위기에 대응할 전망

현대차는 2026년~2030년까지 5개년 간 약 77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제시했던 5개년 투자 계획인 70조 3천억 원 대비 약 7조 원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30조 9천억 원, 설비투자(CAPEX) 38조 3천억 원, 전략투자 8조 1억 원을 투자하여 현지화 전략을 실행하고, SDV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관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 부과가 지속됨에 따라 대미 투자 금액을 26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미국 현지 완성차 생산 비중을 80%까지 확대하여 美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이다. 대미 투자 금액은 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및 로봇틱스 생태계 구축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중장기 투자 계획



자료: 현대차,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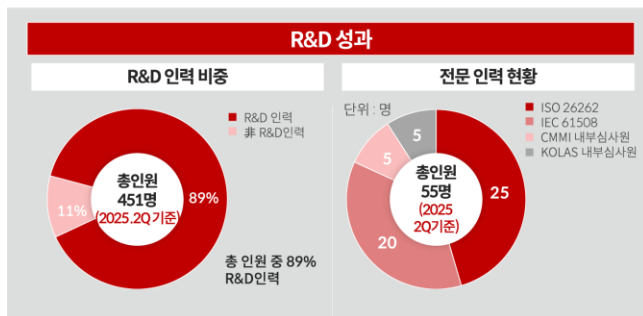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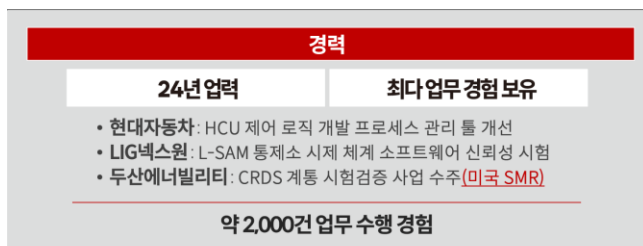
1 S/W 검증 분야 차별화된 기술력 보유

슈어소프트테크는 101건의
특허권, 24년 업력, 2,000건 이상
프로젝트 경험과 89%의
연구개발 인력 바탕으로 차별화된
S/W 검증 기술력 보유

슈어소프트테크는 S/W 검증 분야 톱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당사는 국내/외 특허권 101건(3Q25말 현재 국내 75건, 해외 26건)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코드/시스템 검증 테스트에서 고객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당사는 S/W 검증 분야에서 24년의 업력으로 많은 서비스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현대차/LIG넥스원/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주 고객들과 약 2,0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여 고객의 S/W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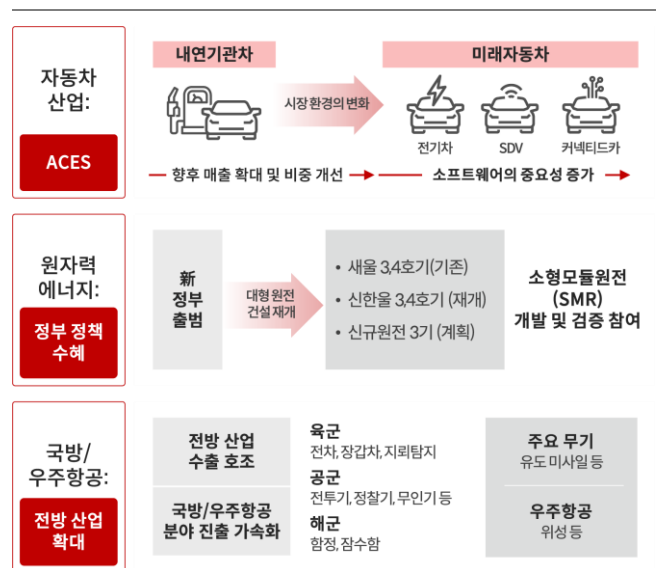
슈어소프트테크는 총인원 중 약 89%가 연구개발 전문인력이고 경장연구개발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당사는 기술 중시 경영 기업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경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자동차, 국방, 원자력 등 3대 전방산업의 S/W 검증 니즈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동사의 기술력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할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슈어소프트테크 기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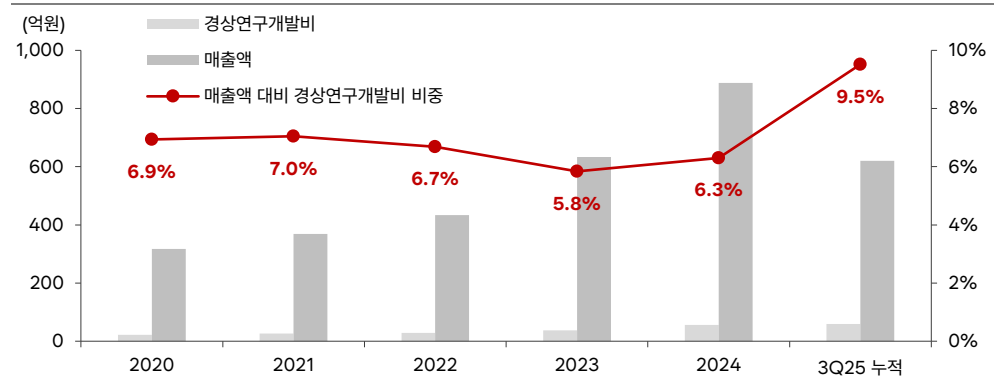
주: 2025년 6월말 기준, 자료: 슈어소프트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슈어소프트테크 전방산업 현황



자료: ACES(Autonomous, Connected, Electrified, Shared), 슈어소프트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슈어소프트테크 경상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대비 비중 추이



자료: 슈어소프트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13년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 표준 적합성과 대외 공신력을 확보, S/W 검증 분야를 선도

슈어소프트테크는 S/W 검증 분야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2000년 초반부터 독보적인 기술력을 조성/확보하고 이를 인정받아 왔다. 대표적 예 중 하나가 2013년 한국품질시험원(KQT)으로부터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KOLAS는 국제기준인 'ISO/IEC 17025'를 충족하는 시험·교정기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 공인 제도로, KOLAS 인정이란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공인시험기관이 해당 인정분야 및 범위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적합성 평가 활동을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공신력을 얻는 것을 뜻한다. KOLAS 성적서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KOLAS 인증으로 동사는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이렇듯 동사는 S/W 기능 안전 표준을 선도적으로 제정하여 국제 표준에 맞는 시험 인증 결과를 증명 가능하다. 이는 제3자 검증이 필수인 고객들로 하여금 동사에 서비스 의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동사의 단단한 경쟁력이다.

슈어소프트테크 기술 경쟁력

산업 표준 제정 배경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표준 제정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표준 도입								
2009년 도요타 리콜 사태로 산업별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표준 제정 필요성 대두 도요타 중국 이어 미국에서도 리콜 미국 NHTSA가 리콜 대상 차량 10만 2천 5백 14대로, 중국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 10만 2천 5백 14대로 리콜 대상 차량이 늘어났다. 도요타는 2009년 10월 26일 도요타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도요타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도요타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SURESOFTECH의 선제 대응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표준 획득 Suitable for development of safety-related software acc.to: - ISO 26262 up to ASIL D - IEC 61508 up to SIL 4, class T2 tool - EN 50128 up to SIL 4, class T2 tool - IEC 62279 up to SIL 4, class T2 tool - IEC 62304 up to SW safety Class C - IEC 60880 for category A functions - DO-178C 국제 표준에 맞는 시험인증(V&V) 결과 증명 필수 국제 공인시험 기관 지정 최근 3년 시험성적서 발행 건수 <table border="1"> <tr> <th>연도</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r> <td>건수</td> <td>144</td> <td>161</td> <td>187</td> </tr> </table> Kolas*인증으로 공신력 확보 및 재시험 비용 절감	연도	2020	2021	2022	건수	144	161	187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슈어소프트테크 솔루션 진출 가능 산업군 - 원자력 발전 - 철도 - 국방 - 항공 제3자 검증 필수 제3자 검증 활용 - 자동차 - 의료기기 - 산업일반 -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연도	2020	2021	2022							
건수	144	161	187							

자료: 슈어소프트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전략 고객과의 협업 확대 기대

자동차 사업 관련 매출 비중은

3Q25 누적 기준 52.5%.

현대차그룹의 SDV 전환과

자율주행/SDV 등 미래 모빌리티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 기대

슈어소프트테크의 자동차 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은 전술한 바와 같이 3Q25 누적 연결 기준으로 52.5%로, 동사 산업 부문별로 볼 때에 비중이 가장 크다. 자동차 사업 관련 매출액은 현대차 및 현대차그룹 부품사, 관련 중견 부품사향 매출액이고 각 비중은 통상 30:40:30 수준이다. 관련 수요는 구조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SDV(Software Driven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세부 목표와 적용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나, 현대차 SDV 전략의 실행 방안은 여전히 1) 전 차종에 OTA(Over The Air, 무선통신 업데이트 기술) S/W 업데이트 기본 적용, 2) 차량 생애주기 전반의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 서비스(물류/쇼핑/레저/숙박 등과 연계) 제공, 3) S/W 중심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한 로보택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연동 서비스 제공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많은 S/W 개발과 탑재를 수반하고, 관련하여 많은 시험 검증 니즈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UAM은 탑승자의 안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미래 모빌리티이므로, 고신뢰 고위험 소프트웨어 검증 수요는 시장 도래 본격화에 따라 급증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동사와 현대차그룹 간 협업이 증가할 이유들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SIMVA, AUTOSIM 등

가상화/시뮬레이션 검증 솔루션

보유, 현대차와 22건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레퍼런스 기반으로

협업 확대 가능하다고 판단

1) 동사의 우수한 검증 도구/솔루션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협업 확대 가능성

슈어소프트테크는 가상화/시뮬레이션 관련 검증 도구/솔루션(SIMVA, AUTOSIM)을 보유하고 있다. SIMVA는 가상 ECU 기반 통합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한다. AUTOSIM의 경우 가상 주행 시나리오 및 환경 기반 하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 검증 가능하다. 동사는 현대자동차와 다양한 협업을 既 진행한 바 있는데, ‘전자편의제어기 차량 옵션별 SILS 검증 강화’ 등 현대자동차와 가상환경 구축 및 시뮬레이션 검증 프로젝트를 이미 22건 이상 수행하였다. 향후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은 확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현대오토에버와 차량 가상검증

관련 기술개발 MOU 체결하고

협력 진행. 현대차그룹 SDV 전환

가속화 시 협업 확대 전망

2) 현대오토에버와의 협업 강화 가능성

슈어소프트테크는 2022년 현대차그룹 IT 및 자동차 S/W 주요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와 차량 가상검증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SDV 전환이 가속화된다면 현대오토에버와의 협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로봇/로봇 부품 사업

본격화로 향후 로봇 관련 S/W

검증 의뢰 증가 기대

3) 현대차 로봇 사업 관련 협업 증가 가능성

현대차그룹은 미국 로봇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를 2020년 12월 인수한 후, 그룹 차원에서 로봇 사업 본격화를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CES 2026에서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실물로 시연되었고 이는 향후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사업 적극성/진정성을 예고하는 이벤트였다. 현대차그룹은 그룹차원에서 2028년 아틀라스 연산 3만대 양산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대차/기아, 보스턴다이나믹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내밀었다.

따라서 향후 현대차그룹 계열 부품 기업들의 다양한 로봇/로봇 부품 S/W 개발과 제품 내 탑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새로운 S/W 검증 수요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적어도 1~2년 이후에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다양한 로봇 관련 S/W 검증 의뢰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HL만도의 경우 2028년 로봇용 액추에이터 사업 본격화를 선언한 바 있고, 현대모비스도 로봇 부품 사업 진출을 2H25경부터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CES 2026에 공개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F]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동력(모비젠, 슈어데이터랩) 확보

연결대상 종속기업 모비젠,
슈어데이터랩의
2025년 흑전 기대

슈어소프트테크는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진행하였고, 이는 인수합병, 투자 등을 통해 발현되었다. 특히 기대되는 것은 연결대상 종속회사 모비젠, 슈어데이터랩이다. 양사는 2025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영업 이익 흑자전환)가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비젠은 슈어소프트테크가
2023년 인수한 자회사(지분율
50.54%)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5G 기반
데이터 처리 플랫폼 및 분석
솔루션 제공

1) 모비젠(동사 지분율 50.54%, 3Q25말 기준)

모비젠은 2023년 8월 동사가 인수한 기업이다. 고객의 빅데이터, AI, Cloud, 5G 도입에 따르는 데이터 분석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처리 및 관리 S/W를 개발/공급하는 데이터 S/W 전문기업이다. 모비젠의 사업 핵심 키워드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차세대통신망(5G, SDN) 등이고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빅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하기 위한 전반적인 플랫폼 SW를 공급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서비스
- ✓인공지능 분석 및 모델링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분석 모델링 작업을 수행
- ✓클라우드로 빅데이터 분석, AI 분석을 할 수 있는 S/W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 ✓차세대 통신망(5G, SDN) 관련 품질관리, 장애관리를 할 수 있는 빅데이터/AI 기반 솔루션을 공급

모비젠은 2000년 설립 후 국내
이동통신 품질 분석 솔루션 최초
개발, 인도 바티에어텔 수출,
클라우드 기반 통신망 시스템 혁신
및 대용량 웹메일 솔루션 국산화
등 주요 레퍼런스 보유

모비젠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사의 대용량 과금 데이터를 활용, 통신망 고객의 체감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품질 환경의 안정화에 기여했고, 고객과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개선 관련 국내 주요 레퍼런스를 쌓았다. 뿐만 아니라 인도 이동통신업체인 바티에어텔(Bharti Airtel)에 휴대폰 사용자 단위 품질체감지수(CEI)를 생성하는 '패킷프로브' 라이선스를 공급했고, CEI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구축도 진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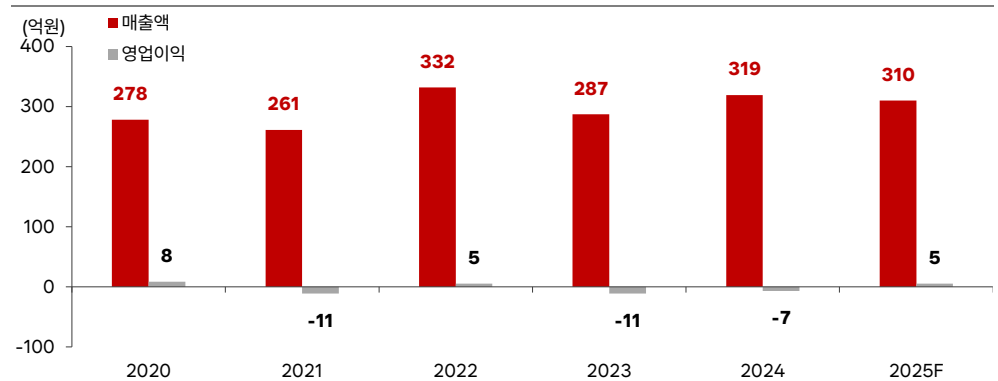
모비젠은 대형서버에 의해 구축된 통신망 관리 시스템 아키텍처를 혁신적인 클라우드 분산 구조의 소형 리눅스 서버로 대체, 하드웨어 구매 및 고가의 외산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비용을 줄임으로서 고객의 실질적 TCO/OPEX 비용 절감이라는 사례를 만들었다. 또한, 외산 대용량 웹메일 솔루션 위주의 국내 웹메일 시장에서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된 대용량 웹메일 솔루션을 국내 대형 포털, 주요 정부기관, 대기업 등에 적용하여 대용량 웹메일 솔루션 관련 국산화에 기여했다.

**모비젠은 인수 후 적자 지속,
2025년 비용 절감과 믹스 개선
등에 따라 흑자전환 전망**

모비젠은 2023년(인수 당시)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287억 원, -11억 원을 기록하였고, 2024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19억 원, -7억 원을 기록했다. 즉 인수 후 2년간 실적은 다소 부진했다.

2025년은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310억 원, 5억 원으로 턴어라운드(영업이익 흑자전환)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비용 절감과 매출액 믹스개선(하드웨어 납품 감소하고 소프트웨어 납품 증가)이 실적 개선의 주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해외고객 개척과 신규 기술 확보 통한 신서비스 제공이 가시화된다면, 향후 모비젠 실적은 추가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모비젠은 슈어소프트테크 내 성장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단단히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비젠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슈어데이터랩은 슈어소프트테크와
한국전력이 공동 출자한 데이터
전문기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BeyMonS Cloud와 스마트팜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며 2025년
흑자전환 예상**

2) 슈어데이터랩(동사 지분을 85.57%, 3Q25말 기준)

슈어데이터랩은 슈어소프트테크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데이터로 만드는 더 이로운 세상을 고민한다”가 기업 모토이다. 슈어데이터랩은 데이터가 고객/세상에 이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를 발굴, 더욱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IT 플랫폼 구축 서비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이다.

슈어데이터랩의 대표 제품은 ‘BeyMonS Cloud’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계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만의 언어 체계로 위험을 전파한다는 것이 주요 제품 컨셉이다. 동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이며 다양한 장비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적용을 통해 Edge 제어를 하며, 다양한 산업용 프로토콜 및 통신 방식을 지원한다. 고객 요구에 따라 온프레미스(내부 구축형) 또는 클라우드 환경 각각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며, 고객의 의사결정을 위한 현황판과 실시간 모니터링 뷰 등을 제공한다.

최근 슈어데이터랩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팜(농업 관련) 시스템 사업이다. 농가 비닐하우스의 온도, 습도 등을 센서로 측정/수집하고 일정 조건을 넘어갈 시 알람을 주거나 각종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 진행 중이다. 이는 고객 및 잠재고객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슈어데이터랩의 2025년 실적은 매출액 21억 원, 영업이익 2억 원으로 기대된다. 매출액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영업이익은 소폭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슈어데이터랩의 실적 기여는 아직 크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슈어데이터랩이 응용 산업 분야를 확대하고 신규 고객을 추가 확보할 시 실적은 성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슈어데이터랩의 'BeyMonS Cloud'



자료: 슈어데이터랩,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3Q25 누적 실적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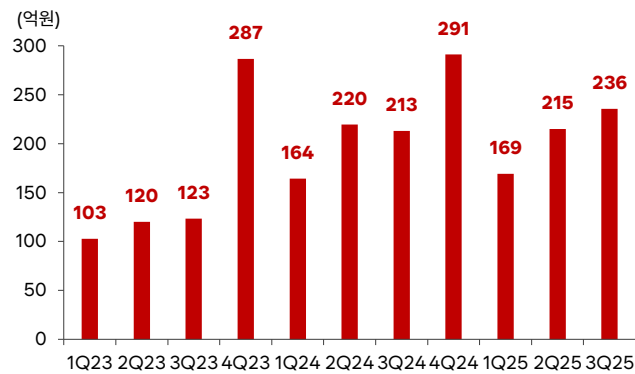
**3Q25 누적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620억 원(+3.9% YoY),
17억 원(+395.5% YoY)을 기록**

2025년 3Q25 누적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620억 원(+3.9% YoY), 17억 원(+395.5% YoY)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3분기 누적 실적(597억 원) 대비 성장했는데,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사업(다양한 검증 서비스)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었다. 기존 사업 4개 중 특히 모델 검증 분야가 전년 45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증가한 점이 가장 주요했고, 코드 검증과 미래기술 검증도 각각 207억 원에서 214억 원으로, 27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성장한 것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검증은 전년 111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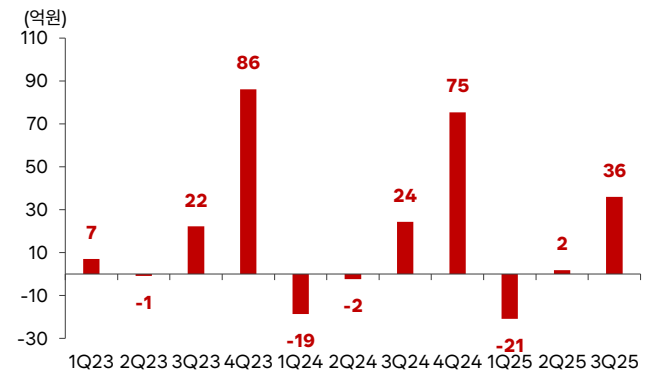
영업이익은 3분기 누적 기준 17억 원으로 전년 동기(3억 원) 대비 개선되었다. 이는 매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중국법인의 지급수수료 감소(매입 규모 감소와 비용절감 노력에 따른 감소)가 이루어진 것에 기인했다. 3Q25 누적 기준 사업보고서 상 영업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1) 급여 및 퇴직급여가 전년 277억 원에서 286억 원으로, 2) 복리후생비가 전년 4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3) 경상연구개발비가 전년 43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1) 지급수수료가 전년 33억 원에서 22억으로, 2) 외주용역비가 전년 9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종합적으로 3Q25 누적 기준 영업비용은 전년 593억 원에서 603억 원으로 1.7%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분기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자료: FnGuide Quantil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자료: FnGuide Quantil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F 실적 전망

**2025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912억 원(+2.7% YoY),
99억 원(+25.5% YoY)으로
전망**

2025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성장한 912억 원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관련 주요 고객들의 검증 수요가 견조하고, 통신/공공(빅데이터/AI) 호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형태별로 보면, S/W 시험검증 부문을 전년 대비 2.2% 성장한 573억 원으로, 빅데이터/AI 부문을 전년 대비 3.8% 성장한 339억 원으로 전망하였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정하였고 실제 수치는 추정치를 소폭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99억 원으로, 전년(79억 원) 대비 20억 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매출 규모의 증가와 중

국법인 중심으로 지급수수료 감소, 전사적인 외주용역비 절감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또한 투자포인트 챗터에서
 既 언급하였듯이 연결 자회사들의 손익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2026F 실적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024억 원(+12.3% YoY),
 122억 원(+23.2% YoY)으로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3% 성장하여 사상 최대치인 1,024억 원으로 전망된다. 주 고객의 SDV 관련 개발 수요 확대에 따라 자동차 관련 S/W 검증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주춤했던 원자력/에너지 관련 수요도 일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사업 형태별로 보면, S/W 시험검증 부문을 전년 대비 12.3% 성장한 639억 원으로, 빅데이터/AI 부문을 전년 대비 13.6% 성장한 385억 원으로 전망하였다. 중기적으로 우주항공과 국방 관련 수요가 늘어난다면 전사적으로 매출액 성장은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122억 원으로, 전년(99억 원) 대비 23억 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사상 최대치). 매출 규모의 증가, 고부가 S/W 검증 수요 증가, 신규고객 진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실적을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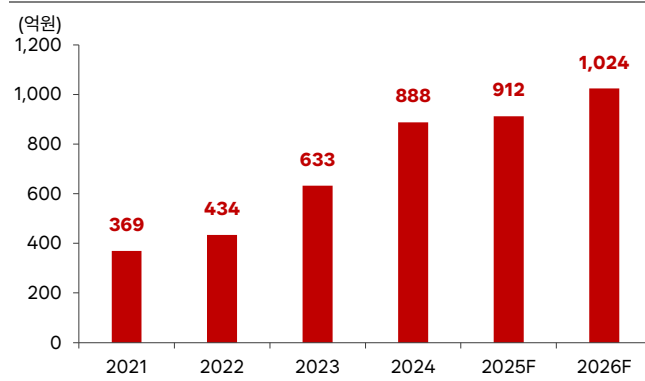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34	633	888	912	1,024
① S/W 시험검증	434	509	561	573	639
코드 검증 솔루션	247	254	298	306	325
시스템 검증 솔루션	102	127	158	148	149
모델 검증 솔루션	28	48	59	69	95
미래기술 검증 솔루션	57	80	46	50	70
② 빅데이터/AI	-	123	327	339	385
AI & Bigdata	-	90.65	237.33	244	270
AI Ops	-	32.68	89.39	95	115
③ 기타(임대 등)	-	0	0	-	-
영업이익	97	115	79	99	122
지배주주순이익	94	51	108	72	99
YoY 증감률					
매출액	17.6	45.7	40.3	2.7	12.3
영업이익	43.5	18.7	-31.2	25.5	23.2
지배주주순이익	17.8	-46.5	113.6	-33.4	37.5
영업이익률	22.3	18.1	8.9	10.9	11.9
지배주주순이익률	21.8	8.0	12.2	7.9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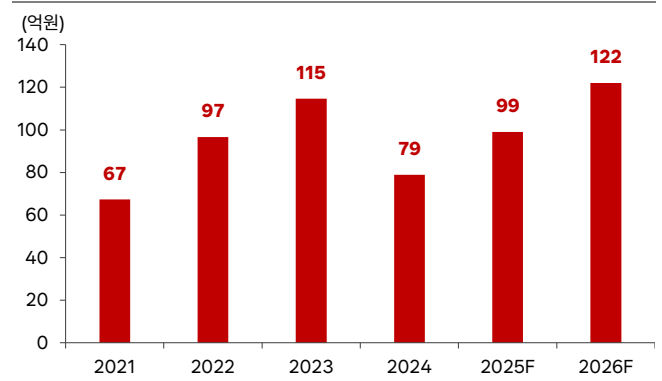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6년 PSR은 4.6배로 거래 중
**동사 PSR 밸류에이션은
코스닥 시장 대비 높음**

2026년 1월 8일 기준 슈어소프트테크 시가총액은 4,657억 원 수준이다. 2026년 슈어소프트테크의 예상 PSR은 4.6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1.9배) 대비 크게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동사 Peer로 에스오에스랩,
오비고 선정**

슈어소프트테크는 자동차, 통신/공공(AI/빅데이터) 관련 S/W 검증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동사와 유사한 상장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선으로 자동차 SDV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소형기업들(에스오에스랩, 오비고, 인포뱅크 등)을 Peer로 고려할 수 있다. 동사의 Peer로 에스오에스랩, 오비고를 선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 오비고는 2025년 중 발간된 당사 리서치센터의 분석자료 수치를 인용하였다(인포뱅크의 경우 당사 리서치센터 자료가 존재하나 기간이 오래되어 제외). 동사를 제외하고 Peer들은 영업적자 상황으로, 기업간 상호 비교는 2025년 PSR(각 기업 시가총액은 2025년말 기준)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2025년 비교 3개사의 PSR 밸류에이션은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동사 PSR 4.6배 VS 에스오에스랩 PSR 29.7배 VS 오비고 PSR 2.4배). 슈어소프트테크는 에스오에스랩 대비는 상대적으로 PSR 할인을, 오비고 대비는 상대적으로 PSR 할증을 받고 있다.

에스오에스랩은 2016년 설립된 라이다 설계/제조 기업으로 2024년 6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라이다는 레이저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반사된 빛을 분석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센서이다. 웨이모, 화웨이 등이 다중 감각 융합 방식을 적용한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라이다 수요 또한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오에스랩의 동사 대비 할증은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라이다 시장의 성장 기대감과 신규 상장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오비고는 2003년 설립되어 2021년 상장한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브라우저, 음성인식 등 사용자 경험 중심의 차량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슈어소프트테크의 경우 안정성 문제와 직결되는 소프트웨어 검증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오비고는 편의 중심의 인포테인먼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오비고는 아직 영업적자 상태이며, 완성차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추세로 외주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오비고 밸류에이션은 동사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매출액(십억원)			PSR(배)			PBR(배)		
			2024	2025F	2026F	2024	2025F	2026F	2024	2025F	2026F
코스피	4,552	3,646,991	3,752,926	3,050,751	3,315,233	-	1.1	1.0	-	1.5	1.3
코스닥	944	515,271	334,116	111,432	128,580	-	2.3	1.9	-	3.1	2.8
슈어소프트테크	8,850	466	89	91	102	2.6	4.6	4.6	2.5	4.3	4.3
에스오에스랩	18,290	326	5	11	-	45.4	29.7	-	7.5	12.8	-
오비고	5,910	75	14	32	-	5.5	2.4	-	2.3	2.7	-
동종업종 평균						25.4	16.1	-	4.9	7.8	-

주: 2026년 1월 8일 종가 기준. 1) 동종그룹 중 에스오에스랩 25F는 시장 컨센서스 사용, 2) 오비고의 25F 매출액은 당사 리서치센터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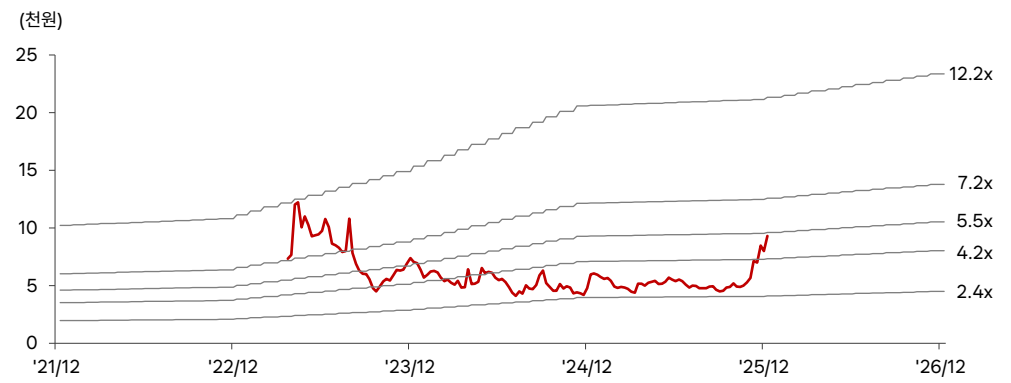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개선과 자동차 S/W 산업
기대감이 주가 상승 요인임.
향후 고객 협업 확대 및 자회사
실적 개선 시 추가 상승 가능**

슈어소프트테크 주가는 2025년 연간 약 82% 상승했다. 1) 2025년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2) 테슬라, 웨이모 등 해외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산업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현대차그룹도 SDV 가속화를 지속 공언하는 등 자동차 S/W 산업 기대감이 높아졌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 고객들과의 협업 확대와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등이 진행되어 동사 매출액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확대된다면 슈어소프트테크 기업가치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슈어소프트테크 PSR Band





리스크 요인

1 자율주행 시장 성장의 속도조절 가능성

로보택시 산업은 웨이모, 테슬라
중심으로 성장 중이나, 자율주행
산업 성장 속도 및 기술력 등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S/W 개발 및
탑재 수요 변동성 有

로보택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로보택시는 자율주행택시 또는 무인택시 등으로도 불리운다. 로보택시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차량의 모든 구동 및 제어를 하여 운영되는 자율주행 택시를 말한다.

로보택시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글로벌 Top Tier인 웨이모,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은 미주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웨이모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등 5개 도시에서 약 2,500대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마이애미에서는 완전 무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테슬라도 로보택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로보택시의 글로벌 서비스 지역 확대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테슬라 FSD(Full Self Driving)는 최근 누적 주행거리 70억 마일을 돌파했다. 일부 기술 분석 전문가는 테슬라 FSD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 FSD가 활발히 쓰이면서 누적 주행 데이터가 증가하고 그 능력이 향상되며, 시스템 업데이트 등으로 관련 성능이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선순환이다.

다만,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전히 자율주행 차량 사고 소식은 들려오고 있다. 여전히 자율주행 차량 탑승을 경험한 이 중에서는 주행 중 안정적인 주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완전한 자율주행, 안정성 확보라는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기에 이는 어쩌면 필수불가결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이슈인 만큼, 대중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 관련하여 안정성이 대중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율주행 산업 성장 속도도 지연될 수 있다. 자율주행 산업 고도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성장 방향성은 부정당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 성장 속도는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주요 업체들의 자율주행 상용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기대를 하회하며 늦어진다면, 자율주행 관련 S/W의 개발과 탑재 니즈가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슈어소프트테크와 같은 S/W 검증 서비스 업체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S/W 전문인력 구인 어려움

국내 S/W 검증 전문인력
부족으로 전문인력 확보/확대
어려움 존재

슈어소프트테크는 S/W 검증 서비스 분야에 특화하여 사업을 영위 중이다. 따라서 S/W 전문인력, 특히 검증 테스트 관련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내에 S/W 검증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적다보니 숙련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경력으로 구인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당사는 S/W 관련 신입인력을 채용한 후 S/W 검증 관련으로 사내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하고 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관련 인력들을 훈련시켜야 하다 보니 전문인력을 충분히 유지/확보 및 확대하는 데에 있어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34	633	888	912	1,024
증가율(%)	17.6	45.7	40.3	2.7	12.3
매출원가	0	0	0	0	0
매출원가율(%)	0.0	0.0	0.0	0.0	0.0
매출총이익	434	633	888	912	1,024
매출이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판매관리비	338	518	809	813	902
판매비율(%)	77.9	81.8	91.1	89.1	88.1
EBITDA	111	136	116	137	159
EBITDA 이익률(%)	25.5	21.5	13.1	15.0	15.5
증가율(%)	39.7	23.2	-14.7	18.1	15.6
영업이익	97	115	79	99	122
영업이익률(%)	22.3	18.1	8.9	10.9	11.9
증가율(%)	43.5	18.7	-31.2	25.5	23.2
영업외손익	8	-47	24	-24	-18
금융수익	7	57	67	19	22
금융비용	1	30	44	44	41
기타영업외손익	2	-74	1	1	1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1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04	67	104	75	104
증가율(%)	25.7	-35.4	53.8	-27.3	38.5
법인세비용	10	9	3	3	5
계속사업이익	95	58	101	72	99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95	58	101	72	99
당기순이익률(%)	21.8	9.2	11.3	7.9	9.7
증가율(%)	17.9	-38.3	72.8	-28.6	37.6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94	51	108	72	99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3	147	95	107	129
당기순이익	95	58	101	72	99
유형자산 상각비	13	18	27	28	27
무형자산 상각비	1	3	10	10	9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9	15	-37	-1	-4
기타	3	53	-6	-2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47	-152	7	54	-3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3	9	-71	-0	-1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90	-61	-14	-20	-20
기타	-60	-100	92	74	-1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51	91	-65	30	21
차입금의 증가(감소)	142	-40	-60	0	1
사채의증가(감소)	0	150	0	30	20
자본의 증가	20	0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11	-19	-5	0	0
기타현금흐름	-0	0	1	0	0
현금의증가(감소)	-2	86	36	191	116
기초현금	111	108	194	231	422
기말현금	108	194	231	422	538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511	711	706	832	998
현금성자산	108	194	231	422	538
단기투자자산	238	286	193	120	135
매출채권	118	113	167	172	193
재고자산	0	0	0	0	0
기타유동자산	46	118	115	118	133
비유동자산	478	870	918	900	885
유형자산	423	470	464	456	449
무형자산	3	223	222	212	203
투자자산	35	66	117	118	119
기타비유동자산	17	111	115	114	114
자산총계	988	1,581	1,624	1,732	1,884
유동부채	289	469	427	463	511
단기차입금	84	114	77	77	77
매입채무	4	27	29	30	33
기타유동부채	201	328	321	356	401
비유동부채	133	153	136	137	141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123	126	102	102	102
기타비유동부채	10	27	34	35	39
부채총계	422	622	563	600	652
자배주주지분	565	818	925	997	1,096
자본금	50	53	53	53	53
자본잉여금	202	416	416	416	416
자본조정 등	-2	-17	-17	-17	-17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	-1	-2	-2	-2
이익잉여금	316	366	474	546	645
자본총계	566	960	1,061	1,133	1,232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0.0	71.1	21.2	58.8	47.8
P/B(배)	0.0	4.5	2.5	4.3	4.3
P/S(배)	0.0	5.7	2.6	4.6	4.6
EV/EBITDA(배)	N/A	27.3	20.0	30.4	28.3
배당수익률(%)	N/A	0.0	0.0	0.0	0.0
EPS(원)	191	98	205	137	185
BPS(원)	1,093	1,555	1,758	1,865	2,050
SPS(원)	878	1,220	1,688	1,733	1,916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8.6	7.3	12.4	7.5	9.5
ROA	10.9	4.5	6.3	4.3	5.5
ROIC	25.7	18.4	10.0	12.5	15.6
안정성(%)					
유동비율	176.9	151.6	165.3	179.8	195.4
부채비율	74.6	64.8	53.0	52.9	52.9
순차입금비율	-9.5	-7.8	-10.2	-17.4	-24.9
이자보상배율	231.9	6.5	4.1	5.6	6.4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5	0.6	0.5	0.6
매출채권회전율	4.0	5.5	6.3	5.4	5.6
재고자산회전율	N/A	N/A	N/A	N/A	N/A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슈어소프트테크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1.12	슈어소프트테크-소프트웨어 검증 분야를 선도하는 작지만 알찬 기업
2023.11.02	슈어소프트테크-자율주행 검증을 책임진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